

2021년 상반기 보건산업 수출 동향 및 하반기 전망

산업통계팀 **윤주영**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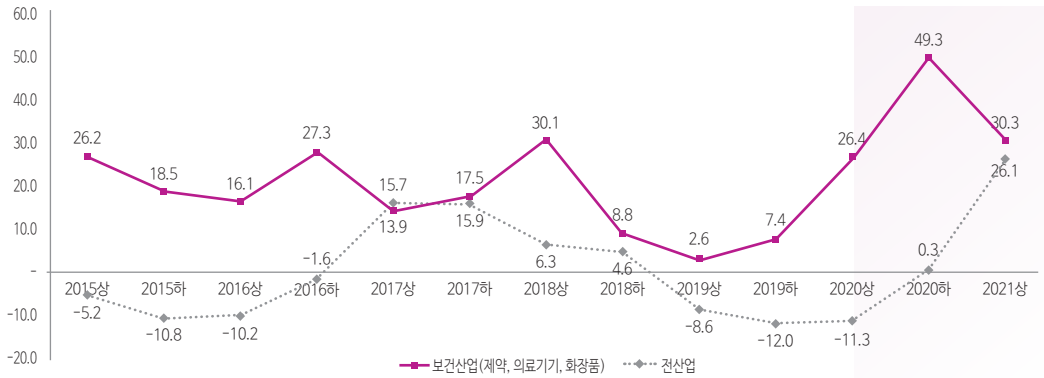
- I. 배경
- II. 자료 및 분석방법
- III. 2021년 상반기 보건산업 수출 동향
- IV. 2021년 하반기 보건산업 수출 전망
- V. 요약 및 시사점



I 배경

- 글로벌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에 따른 세계 경기 둔화, 전 세계 교역 감소 등 대외 여건 악화로 2020년 우리나라 자동차, 철강, 선박 등 주력 수출 품목의 수출입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2021년 상반기에 이르러 수출 회복세를 보이며 빠르게 반등하고 있음

 - '20년 수출은 어려운 상황에도 4년 연속 연간 수출 5,000억 달러 달성 및 12년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였으며, 반도체 등 ICT 관련 품목이 꾸준한 성장세를 보임
 - '21년 상반기 수출은 3,032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6.1% 증가,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24.0% 증가한 2,851억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첫 3,00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다른 글로벌 위기 때보다 더 빠르게 반등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15대 주력품목¹⁾ 수출이 모두 고르게 증가하며, 반도체 571억 달러(21.9%), 일반기계 260억 달러(9.1%), 석유화학 261억 달러(51.1%) 순으로 나타났음



[그림 1] 전산업 및 보건산업 수출 증가율(전년 동기대비,%)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가공,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

- 2020년 보건산업 수출은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전 분야에서 모두 역대 최고 수출액을 기록하며 힘든 환경 속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임

 - '20년 보건산업 수출은 217억 달러로 전년대비 38.3% 증가하였으며, 진단제품 및 바이오의약품 등 방역물품의 선전에 힘입어 역대 최고 수출실적을 달성함. 산업별로는 의약품이 84억 달러로 전년 대비 62.6% 증가, 의료기기는 57억 달러(+44.0%), 화장품 76억 달러(+15.6%)를 기록함
 - '00년에 11억 달러였던 보건산업 수출액이 '20년 217억 달러로 불과 10년 만에 20배 가까이 성장하였으며, '21년 상반기 기준 124억 달러를 기록하며 '20년 총 수출액의 57.4%를 넘어서는 등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
- 본고에서는 2021년 상반기 보건산업의 주요 수출 성과를 살펴보고, 2021년 하반기 수출을 전망하고자 함

1) 주력 품목(15대) : 반도체, 일반기계, 자동차, 석유화학, 석유제품, 철강, 선박, 무선통신기기, 자동차부품, 섬유,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가전, 컴퓨터

II 자료 및 분석방법

■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TRASS) 무역통계자료를 기초로 산업별, 품목별 및 지역별 수출 성과를 분석하고 전망함
 - 2014년 1월부터 최근 2021년 6월까지 90개의 월별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

- 분석시 사용된 자료는 통계 집계 방식의 차이로 인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가승인통계(연간 수출입액, 보고통계)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보건산업의 정의는 대외 무역거래 상품분류(HSK) 10단위 기준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에 해당하는 644개 품목분류 코드를 기준으로 분류

- 본 분석에 사용된 산업별/품목별/지역별 분류는 다음과 같음

구분	내용	
산업 구분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품목 구분 (16개)	의약품(6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제) 개개의 기관계용 의약품, 대사성 의약품, 항병원생물성 의약품, 치료를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의약품, 완제 의약품 기타(신경계 감각기관용, 조직세포의 기능용 의약품 등) • (원료) 원료 의약품
	의료기기(4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구기계, 의료용품, 치과 재료, 체외진단용 시약
	화장품(6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화장품, 색조화장품, 눈화장품, 두발용 화장품, 인체세정용, 기타 화장품(어린이용, 기능성, 목욕용, 면도용, 체취방지용, 손발톱용 등)
지역 구분(5개)	북미, 유럽, 아시아/퍼시픽, 중남미, 중동/아프리카	

주 : 보건산업 품목 분류는 HS코드를 활용하여 저자가 재구성함

■ 분석방법

- 오픈 소스인 R프로그램(www.r-project.org)의 forecast 패키지를 활용하여 산업별, 지역별, 주요 품목별 2021년 하반기 예측하였으며, 시계열 모형인 지수평활모형 및 ARIMA 모형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 중 적합도가 가장 높은 모형을 선택하여 최종 전망 수치를 도출함

- 지수평활모형 : 시계열의 구성요소가 시간에 따라 느리게 변동하거나 변동이 느리지 않더라도 매우 규칙적인 형태를 보여주는 경우 적합한 방법. 모든 과거의 값을 가중평균하며, 최근 정보에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 추세와 계절요인 형태에 따라 단순지수평활, 이중지수평활, 홀트윈터 지수평활 등을 활용할 수 있음

- ARIMA모형(자기회귀누적이동평균모형) : 현시점의 관측값을 과거의 관측값들과 백색잡음(white noise)이라고 부르는 오차항의 선형결합의 형태로 표현하는 모형. ARMA모형에 과거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는 모형으로 모형의 상관관계뿐만 아니라 공적분까지 고려한 모형

* ARIMA(p,d,q) : AR(자기회귀) 차수항 p, MA(이동평균) 차수항 q, 차분 d

$$a_p(B)(1-B)^d y_t = \theta_0 + \theta_q(B) f_t, \quad (f_t : \text{평균 } 0, \text{분산 } \sigma_f^2 \text{인 White Noise}, \theta_0 : \text{추세 모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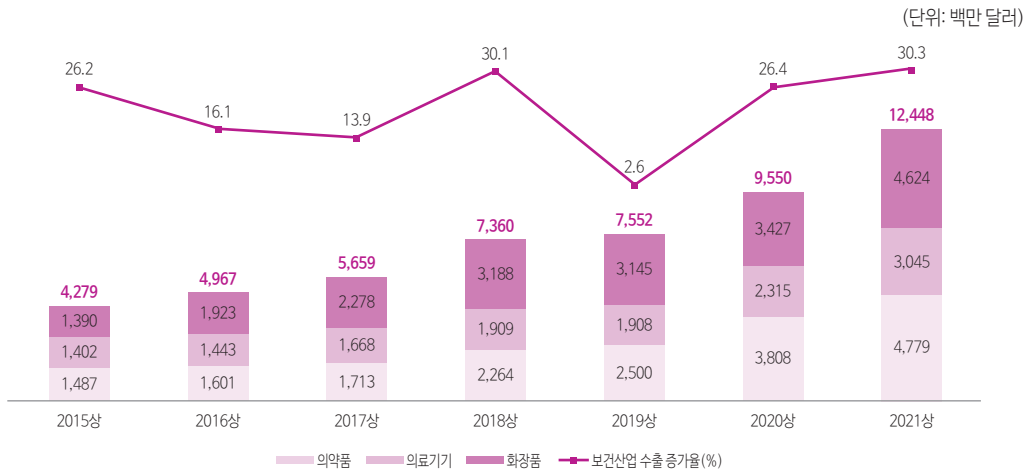
* MAPE(평균절대비율오차)는 실측값과 예측값의 차이를 나타내므로 0에 가까운 모형일수록 잘 적합된 것으로 판단

$$MAPE = \frac{100}{T} \sum_{t=0}^T \left| \frac{z_t - \hat{z}_t}{z_t} \right|, \quad (\hat{z}_t \text{는 시계열 } z_t \text{의 예측값})$$

Ⅲ 2021년 상반기 보건산업 수출 동향

■ 총괄

- 2021년 상반기 보건산업 수출은 바이오의약품의 지속적인 해외 판매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내 진단용 제품의 수요 확대 및 화장품 수출의 회복세가 더해지며 역대 상반기 최고 실적인 124.5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대비 30.3% 증가함



[그림 2] 보건산업 수출 동향(2015년 상반기~2021년 상반기)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가공,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

- 세부 산업별로는 의약품이 47.8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5.5% 증가하였으며, 화장품 46.2억 달러(+34.9%), 의료기기 30.4억 달러(+31.5%) 순을 기록함

〈표 1〉 보건산업 상반기 수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전년 동기대비 %)

구분	2019년 상반기	2020년 상반기	2021년						상반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보건산업	7,552 (2.6)	9,550 (26.4)	2,056 (66.4)	1,908 (46.1)	2,371 (30.4)	2,004 (19.1)	2,024 (15.0)	2,085 (19.4)	12,448 (30.3)
의약품	2,500 (10.4)	3,808 (52.3)	826 (66.8)	853 (75.0)	970 (41.3)	607 (-3.4)	722 (-7.4)	800 (9.7)	4,779 (25.5)
의료기기	1,908 (-0.1)	2,315 (21.4)	476 (72.0)	436 (48.9)	548 (48.0)	520 (5.8)	507 (21.1)	558 (19.9)	3,045 (31.5)
화장품	3,145 (-1.3)	3,427 (9.0)	753 (62.7)	619 (17.7)	853 (11.9)	877 (56.1)	795 (41.5)	727 (31.7)	4,624 (34.9)

주: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임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가공,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

■ 품목별 수출동향

- 바이오시밀러의 해외시장 판매 및 의약품 위탁생산판매(CMO, 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의 꾸준한 성장과 더불어 코로나19 백신 관련 제품 및 진단용 제품 등 K-방역물품 수요가 유지되고 있음
 - 세계적인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국내 코로나 진단키트 등의 K-방역물품의 판매가 확대되고 있으며, 수출주력 품목이었던 임플란트, 콘택트렌즈, 초음파 영상진단기, 기초화장품 제품류 등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며 수출이 확대되고 있음
 - 품목별로 살펴보면 면역물품²⁾이 전년 동기대비 51.0% 증가한 29.9억 달러로 총 수출의 24.0%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기초화장품용 제품류가 49.4% 증가한 23.1억 달러(비중: 18.6%), 진단용 제품³⁾은 22.0% 증가한 8.9억 달러(비중: 7.1%)로 나타남

■ 국가별 수출동향

- 북미 및 유럽지역으로 국산 바이오시밀러 제품 등 면역물품의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으며, 최근 對중국 수출 비중이 확대되면서 의로기기, 화장품 부문의 수출 증가세가 나타남
 - 국내 생산 바이오시밀러는 유럽(독일 등), 미국 및 일본에서 처방확대에 따른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베트남 등 아시아지역으로의 시장 확대를 이어나가고 있음
 - 지난해('20년)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었던 對중 수출은 중국 경제가 점차 정상화되며 의로기기 및 화장품 등 주력수출 품목을 주축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국가별로는 對중국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42.5% 증가한 30.7억 달러로 총 수출의 24.6%를 차지하며 여전히 우리나라 보건산업 수출 1위국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뒤로 독일 15.4억 달러(+96.6%), 미국 11.7억 달러(△4.4%), 일본 9.6억 달러(+10.8%) 순으로 나타남

〈 표 2 〉 주요 국가별 보건산업 상반기 수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전년 동기대비 %)

국가	2019년 상반기	2020년 상반기	2021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상반기
1 중국	1,970 (8.4)	2,151 (9.2)	524 (114.7)	381 (16.8)	553 (15.2)	604 (67.9)	545 (44.9)	459 (25.8)	3,065 (42.5)
2 독일	321 (-7.1)	783 (144.3)	338 (211.7)	361 (659.2)	317 (66.6)	122 (-2.6)	230 (17.7)	173 (47.9)	1,540 (96.6)
3 미국	867 (17.0)	1,224 (41.1)	167 (0.7)	166 (13.9)	183 (-1.1)	177 (-20.5)	197 (-9.7)	279 (-2.5)	1,170 (-4.4)
4 일본	605 (20.1)	864 (42.7)	125 (-0.8)	143 (31.8)	202 (39.7)	165 (4.6)	162 (-9.1)	160 (7.7)	957 (10.8)
5 홍콩	540 (-33.9)	416 (-23.0)	60 (-16.2)	49 (-29.5)	71 (-39.7)	72 (19.5)	54 (0.3)	60 (37.3)	366 (-12.1)
수출 상위 5개국	4,304 (1.9)	5,438 (26.4)	1,214 (69.5)	1,101 (57.6)	1,325 (18.7)	1,139 (23.1)	1,188 (16.3)	1,131 (17.8)	7,099 (30.5)
총 수출	7,552 (2.6)	9,550 (26.4)	2,056 (66.4)	1,908 (46.1)	2,371 (30.4)	2,004 (19.1)	2,024 (15.0)	2,085 (19.4)	12,448 (30.3)

주: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임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가공,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

2) HSK 3002149000(기타) 및 3002150000(면역물품)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바이오시밀러 제품과 위탁생산(CMO)하는 바이오의약품, 항체 진단키트 등이 모두 포함된 수출액으로 집계함

3) HSK 6단위 382200류(HSK 10단위 37개 품목코드)에 해당하는 수출액의 합계값으로 집계함

IV 2021년 하반기 보건산업 수출 전망

1. 2021년 하반기 수출 환경

- 최근 국제통화기금(IMF)는 세계경제전망 수정 보고서⁴⁾에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6%로 유지하며 선진국과 신흥국간 불균등 회복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함. 다만,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4.3%로 기존 대비 0.07%p 상향 조정함
 - 전세계 백신 보급·접종 확대 등 코로나19 조기종식의 기대감 및 주요국들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글로벌 경기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표 3〉 보건산업 수출업계 주요 이슈

구분	세부내용
제품/기술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오시밀러의 오리지널 의약품 대체 지속, 점진적인 판매 확대에 따른 수출액 증가가 지속되고 있고, 코로나19 관련 백신 CMO 및 치료제 등으로 성장 지속 예상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급격히 성장한 체외진단기기 분야는 지속적인 R&D 자금 투입, 신규 인력 채용 등으로 미국의 코로나19 백신 개발에도 불구하고 내적 외적인 부분에서 추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 외 임플란트, 치과용 기기 등 주춤하던 품목의 수출도 회복할 것으로 예상 • 장기간 마스크 착용에 의한 트러블 케어로 K-Beauty에 대한 관심과 수요 증가하고 있으며, 글로벌 백신 접종 확대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점차 완화되면서 메이크업용제품류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경쟁국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든 정부는 지속적으로 ACA 개선 및 강화 등을 주장하며, 공적의료보장 범위 확대, 약가 인상 제한, 공공보험 옵션 추가 제공 등을 추진하고 있어 국내 제약 기업 수출 확대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개혁법(ACA) 개선 내용 : 메디케어(Medicare) 가입 연령을 60세로 인하, 메디케이드(Medicaid) 지원 확대, 물가 상승률 초과 약가인상 제한, 처방의약품 수입으로 경쟁 유도, 제네릭의약품 개발 가속화 추진, 공공보험 옵션(Public Option) 추가 제공 등 • 아시아지역은 인허가 등 규제제도를 우리나라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이 진출하기에 용이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된 수출 및 진출 모두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임 • 국내 화장품산업은 중국으로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만큼 중국 경제 회복에 따라 수출 또한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동시에 新한류로 인한 일본, 베트남, 러시아 등 지역으로의 수출 비중이 점차 확대되어 수출국 다변화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
유가·원자재 환율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백신의 보급,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로 인해 국제유가는 완만한 상승이 예상되며, 미국의 테이퍼링(tapering) 가능성 확대 등 최근 환경변화에 따라 원/달러 환율의 상승이 예상됨
기타 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기술적 발전이 지속됨에 따라 각국의 기술 경쟁은 심화될 것이고 국내 규제와 국제기준의 제품화 속도에 따라 기술수출 등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 코로나19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위기로 인해 클린뷰티와 지속성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가 이뤄지고 있으며, 친환경 성분, 저자극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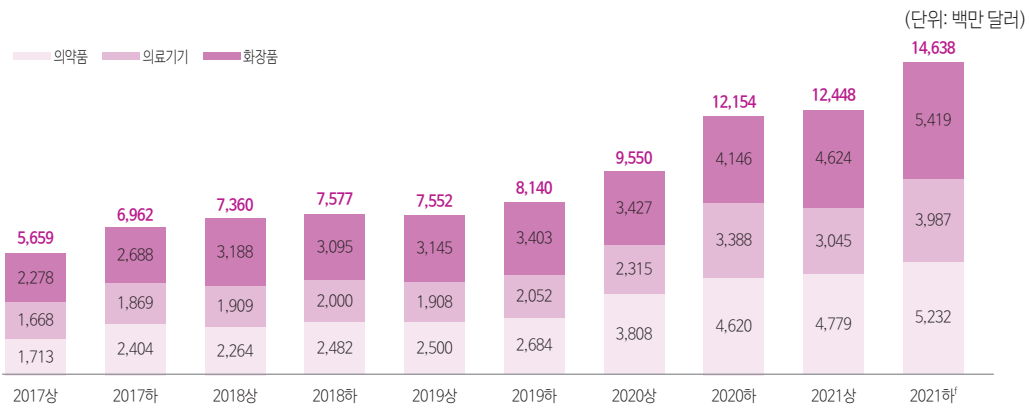
주 : 산학연 전문가 조사를 통해 도출된 이슈를 저자가 재구성함

4)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1 July

2. 2021년 하반기 수출 전망

■ 총괄

- 2021년 하반기 보건산업 수출은 146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0.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산업별로는 화장품 54.2억 달러, 의약품 52.3억 달러, 의료기기 39.9억 달러 순으로 예상함
 -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반기 화장품 수출은 30.7%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의약품 및 의료기기는 각각 13.2%, 17.7%로 지난해에 이어 지속적으로 10% 중반 이상 증가하며 순항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측됨
- 이에 따라 2021년 연간 보건산업 수출액은 전년 대비 24.8% 증가한 271억 달러로 매년 최고액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하며, 특히 의약품 및 화장품 수출액이 역대 최초로 단일 품목 기준 1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의 하반기 수출 역시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 수출 여건이 다소 주춤했던 기저효과로 볼 수 있으나, 보건산업은 신성장 수출 동력으로써 수출이 감소세 없이 우상향하며 외연 확대를 지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음



(단위: 백만 달러, 전년 동기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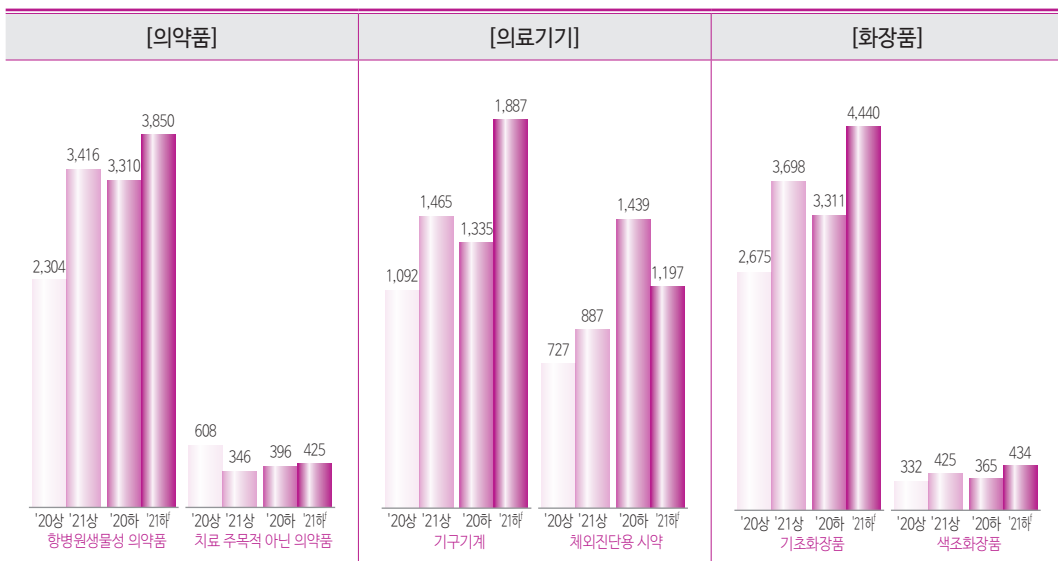
구분	2020년				2021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f		연간 ^f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보건산업	9,550	26.4	12,154	49.3	12,448	30.3	14,638	20.4	27,086	24.8
의약품	3,808	52.3	4,620	72.1	4,779	25.5	5,232	13.2	10,011	18.8
의료기기	2,315	21.4	3,388	65.1	3,045	31.5	3,987	17.7	7,032	23.3
화장품	3,427	9.0	4,146	21.8	4,624	34.9	5,419	30.7	10,043	32.6

[그림 3] 2021년 하반기 보건산업 수출 전망

■ 보건산업 품목별 하반기 수출전망

- 코로나19 백신의약품의 CMO(위탁생산)로 인한 백신 관련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간 부진했던 초음파, 임플란트 등 의료기기 주력 수출 품목 및 기초화장품 제픔류 등 화장품 수출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됨
- (의약품) 주로 면역물품, 백신 등이 포함되어 있는 '항병원생물성 의약품'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지난해 큰 증가율을 보인 소독제 등 방역물품이 포함된 '치료를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의약품'의 경우, 2021년 상반기에 큰 감소를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그 기조를 이어갈 전망
 - 세부 품목별로는 '항병원생물성 의약품'은 '21년 하반기에 전년 동기대비 16.3% 증가한 38.5억 달러로 예상되며, '21년 총 수출은 작년 대비 29.4% 증가한 72.7억 달러로 전망함
 - '치료를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의약품'의 하반기 수출은 7.5% 증가한 4.3억 달러, '개개의 기관계용 의약품'은 전년 동기대비 6.5%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의료기기) 코로나19로 인해 큰 증가세를 보인 '체외진단용 시약'은 기저효과로 작년 동기대비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여전히 수출 규모는 클 것으로 전망되며, 감소세를 보이던 '기구기계' (초음파 등), 치과 재료(임플란트 등)는 전년 동기대비 큰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됨
 - 세부 품목별로는 '기구기계'는 '21년 하반기에 전년 동기대비 41.3% 증가한 18.9억 달러로 예상되며, '21년 총 수출은 작년 대비 38.1% 증가한 33.5억 달러로 예상
 - '체외진단용 시약'의 하반기 수출은 16.8% 감소한 12.0억 달러, '의료용품'은 전년 동기대비 39.8%(연간 33.3%), '치과재료'는 전년 동기대비 58.1%(연간 60.4%)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화장품) 미국, 중국 및 아시아 지역 등의 新한류 및 K-Beauty의 인지도 상승에 따른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그간 주춤했던 '색조 화장품', '눈 화장품' 등의 수출이 회복하며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
 - 세부 품목별로는 '기초화장품'은 '21년 하반기에 전년 동기대비 34.1% 증가한 44.4억 달러로 예상되며, '21년 총 수출은 작년 대비 35.9% 증가한 81.4억 달러로 예상
 - '색조화장품'의 하반기 수출은 19.0% 증가한 4.3억 달러, '두발용 화장품'은 전년 동기대비 17.2%(연간 18.0%), '인체세정용 화장품'은 전년 동기대비 15.2%(연간 15.9%) 증가할 것으로 기대

(단위: 백만 달러)



[그림 4] 보건산업 주요 품목별 수출 전망

〈 표 4 〉 보건산업 주요 품목별 수출 전망

(단위: 백만 달러, 전년 동기대비 %)

구분	2020년		2021년					
			상반기		하반기 ^f		연간 ^f	
보건산업 총수출	21,703	38.3	12,448	30.3	14,638	20.4	27,086	24.8
의약품 합계	8,428	62.6	4,779	25.5	5,232	13.2	10,011	18.8
개개의 기관계용 의약품	66	△17.7	31	△11.3	29	△6.5	60	△9.1
대사성 의약품	24	△9.2	15	22.8	12	3.6	27	13.6
항병원생물성 의약품	5,614	103.1	3,416	48.3	3,850	16.3	7,266	29.4
치료를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의약품	1,004	64.0	346	△43.1	425	7.5	771	△23.2
완제 기타	13	1.5	5	△13.0	6	△9.5	11	△11.2
원료 기타	1,707	1.1	966	14.7	910	5.2	1,876	9.9
의료기기 합계	5,703	44.0	3,045	31.5	3,987	17.7	7,032	23.3
기구기계	2,427	△4.4	1,465	34.2	1,887	41.3	3,351	38.1
의료용품	676	△3.2	399	26.0	503	39.8	902	33.3
치과 재료	433	△7.5	294	63.6	401	58.1	695	60.4
체외진단용 시약	2,167	755.8	887	22.0	1,197	△16.8	2,084	△3.8
화장품 합계	7,572	15.6	4,624	34.9	5,419	30.7	10,043	32.6
기초 화장품	5,986	17.6	3,698	38.2	4,440	34.1	8,137	35.9
색조 화장품	697	△5.4	425	28.1	434	19.0	859	23.3
눈 화장품	193	8.5	106	13.9	113	12.6	219	13.2
두발용 화장품	357	19.3	195	19.1	227	17.2	422	18.0
인체세정용 화장품	265	48.2	155	16.6	153	15.2	308	15.9
화장품 기타	74	15.2	45	49.4	53	21.9	98	33.2

■ 보건산업 지역별 하반기 수출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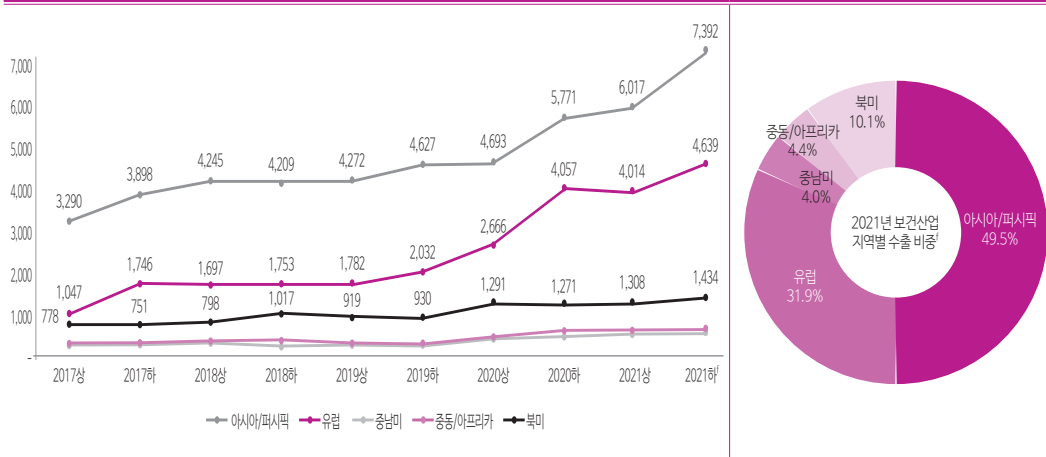
- 지역별 수출 전망을 살펴보면, '아시아/퍼시픽'이 '21년 하반기 28.1% 증가한 73.9억 달러(연간 134억 달러, 28.1%), 유럽이 14.3% 증가한 46.4억 달러(연간 86.5억 달러, 28.7%), 북미가 12.8% 증가한 14.3억 달러(연간 27.4억 달러, 7.0%)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됨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 지역의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 일본 등 아세안 지역은 화장품 및 의료기기 주력 품목의 수요 증대에 힘입어 수출 확대 기대
- 지난해('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유럽, 중남미, 중동지역의 수출은 면역물품, 진단키트 등 K-방역물품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21년 하반기 및 연간 수출은 기저효과가 반영되어 증가세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이거나 여전히 수출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

 - 국내 보건산업 수출 중 절반가량(48.2%, '20년 기준)을 차지하는 아시아/퍼시픽 지역으로의 수출이 지난해 대비(+17.6%) 크게 증가(+28.1%)하며 전체 수출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됨

- 중국 및 일본의 한류 영향 및 온라인 유통망 확산에 따른 화장품 수요 증대, 중국경제가 점차 정상화되며 그간 부진했던 의료기기 주력 품목(초음파, 임플란트 등)의 수출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함
- 코로나19 글로벌 팬데믹(Pandemic) 장기화 및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신규 확진자 증가 지역(유럽, 중남미 등)으로의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 등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단위: 백만 달러)



(단위: 백만 달러, 전년 동기대비 %)

국가(지역)	2020년		2021년			연간 ^f		
	수출액	비율 (%)	상반기	하반기 ^f	연간 ^f			
보건산업 총수출	21,703	38.3	12,448	30.3	14,638	20.4	27,086	24.8
북미	2,562	38.6	1,308	1.3	1,434	12.8	2,742	7.0
유럽	6,723	76.3	4,014	50.6	4,639	14.3	8,653	28.7
아시아/퍼시픽	10,463	17.6	6,017	28.2	7,392	28.1	13,409	28.1
중남미	933	77.2	534	18.3	549	14.1	1,083	16.1
중동/아프리카	1,022	69.3	575	28.7	625	9.4	1,199	17.3

[그림 5] 보건산업 지역별 수출 전망

V 요약 및 시사점

■ 요약

- 글로벌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에 따른 세계 경기 둔화, 글로벌 교역 감소 등 대외 여건 악화로 2020년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의 수출입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2021년 상반기에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며 빠르게 반등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산업 수출은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전 분야에서 모두 역대 최고 수출액을 기록하며 힘든 환경 속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임

- ① 2021년 상반기 수출은 역대 상반기 최고 실적인 124.5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대비 30.3% 증가하였으며, 세부 산업별로는 의약품이 47.8억 달러(+25.5%), 화장품 46.2억 달러(+34.9%), 의료기기 30.4억 달러(+31.5%) 순을 기록함
- ② 2021년 하반기 수출은 146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0.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산업별로는 화장품 54.2억 달러, 의약품 52.3억 달러, 의료기기 39.9억 달러 순으로 예상
 - (품목) 코로나19 백신의약품의 CMO(위탁생산)로 인한 백신 관련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간 부진했던 초음파, 임플란트 등 의료기기 주력 수출 품목 및 기초화장품 제품류 등 화장품 수출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됨
 - (지역)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 지역의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 일본 등 아세안 지역은 화장품 및 의료기기 주력 품목의 수요 증대에 힘입어 수출 확대 기대
- ③ 2021년 연간 보건산업 수출액은 전년 대비 24.8% 증가한 271억 달러로 매년 최고액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하며, 특히 의약품 및 화장품 수출액이 역대 최초로 단일 품목 기준 1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됨

■ 시사점

- ① '21년에는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유럽 및 미국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세계 최대 규모의 위탁생산 능력으로 바이오의약품 및 백신의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이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됨
 - 최근 정부는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백신 산업 생태계 조성 및 국제 협력체계 강화 등 백신 산업 육성 의지⁵⁾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백신 허브로서 백신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
- ②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및 치료제 개발 등 지속적으로 노력함에 따라 후발 주자로 시장 진입 가능성이 있으며, 코로나19 백신은 당분간 지속적인 접종이 요구됨에 따라 국내 백신 개발 시 다양한 시장 확대 가능성이 기대됨
- ③ 코로나19 펜데믹을 계기로 헬스케어시장에서 빠른 진단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어 다양한 진단검사기기들의 성장이 예상되며, 진단기술과 제품기술력을 인정받은 국내 진단용시약의 수출은 당분간 지속 될 것으로 보임
- ④ 국내 화장품 산업은 2020년 이후 면세점 및 오프라인 시장의 성장이 둔화되었으나, 온라인·라이브커머스 등 新유통채널의 다변화를 통해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동시에 新한류로 인한 일본, 베트남, 러시아 등 지역으로의 수출 비중이 점차 확대되어 수출국 다변화가 활발해질 것
- ⑤ 코로나19는 생산 인프라, 연구개발(R&D), 과학·기술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기초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강화, 규제완화에 대한 긍정적 사회 인식, 우리 산업 전반의 글로벌화 등 산업계에 긍정적 영향으로 작용하고 있음.⁶⁾ 이러한 기회를 발판으로 새롭게 맞이할 뉴노멀 시대에 보건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함

5)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 보고대회, 2021.8

6)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바이오헬스 산업의 넥스트 노멀: 포스트코로나를 맞는 한국의 과제

◆ <참고문헌>

-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 보고대회, 2021.8
- 산업통상자원부, 2020년(연간, 12월) 수출입 동향 보도자료, 2021.1
- 산업통상자원부, 2021년 6월 및 상반기 수출입 동향 보도자료, 2021.7.1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DB
- 한국무역협회, 2021년 상반기 수출입 평가 및 하반기 전망, 2021.6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미국 보건산업 시장 및 수출입, 통상정책 동향(내부 보고서), 2021.5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바이오헬스 산업의 넥스트 노멀: 포스트코로나를 맞는 한국의 과제, 2021.8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코로나19 이후 보건산업 동향 분석(내부 보고서), 2021.3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0년 연간 보건산업 수출입 동향 보도자료, 2021.3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1년 6월 및 상반기 보건산업 수출입 동향 보도자료, 2021.8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1 July

- ◎ 집필자 : 산업통계팀 윤주영
- ◎ 문의 : 043-713-8432
-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작성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을 사용 또는 인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 본 간행물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hidi.or.kr>) 및 보건산업통계포털(<https://www.khiss.go.kr>)에 게시되며 PDF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KHISS
 보건산업통계시스템
www.khiss.go.kr